



UNICEF/HQ96-1400/Giacomo Pirozzi 케냐의 유니세프 에이즈 고아보호센터에서 아이들이 벤치에 앉아 음식을 받고 있다.

에이즈 25년의 유산 - 에이즈 고아

엄마, 아빠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이영숙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에이즈사업팀장

피앙의 저절 상의하면 '피앙'은 '세계 에이즈 유산'의 아이들의 고통을 '더도 말고 덜도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이 아이들의 눈빛은 우리들의 손에 걸려 있다.' (2008년 12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들 -1천5백만의 에이즈 고아

아프리카 말라위에 사는 9살의 모니카, 그녀의 엄마와 아빠는 모니카가 4살이었을 때 에이즈로 모두 돌아가셨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살고 있는 모니카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자주 갈 수가 없다. 학교 수업료는 무료이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5km나 떨어져 있는 학교까지 걸어갈 힘이 없기도 하고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옷이 너무 더러운 것이 창피해서이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전혀 먹지 못하고 지내기도 하고 보통은 하루에 한 끼씩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 외에 4명의 에이즈 고아를 더 돌보고 있다. 2명은 모니카의 사촌형제이고 나머지 2명은 친척은 아니지만 모두 에이즈 고아들이다. 모니카의 삶은 말라위의 1백만 명의 에이즈 고아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에이즈가 발생한 지 25년! 지구상의 어느 곳도 에이즈의 마수가 미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사실 우리는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에이즈 이면에 백안시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비극이 있다. 바로 에이즈로 인해 고통 받는 1천5백만의 에이즈 고아(15세 미만, 2005년 말)와 2백3십만의 에이즈 감염 어린이들이다. 에이즈 고아와 감염 어린이의 대부분은(약 90%) 에이즈 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없는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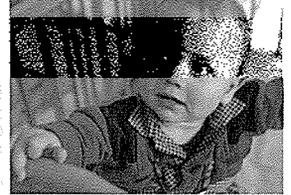
▲ UNICEF/HQ93-2043/Cindy Andrew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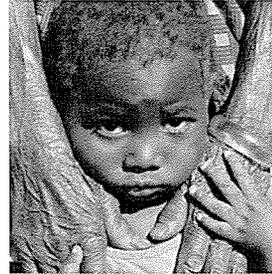
▲ UNICEF/HQ02-0680/Francois d'Elbee

말라위의 에이즈 고아들 중 80%가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 UNICEF/HQ04-0699/Giacomo Pirozzi

유니세프가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센터에서 살고 있는 11개월의 코스타. 에이즈에 감염된 엄마로부터 버려진 후 아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엄마로부터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



▲ UNICEF/HQ02-0681/Francois d'Elbee

감비아의 한 에이즈 고아 소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대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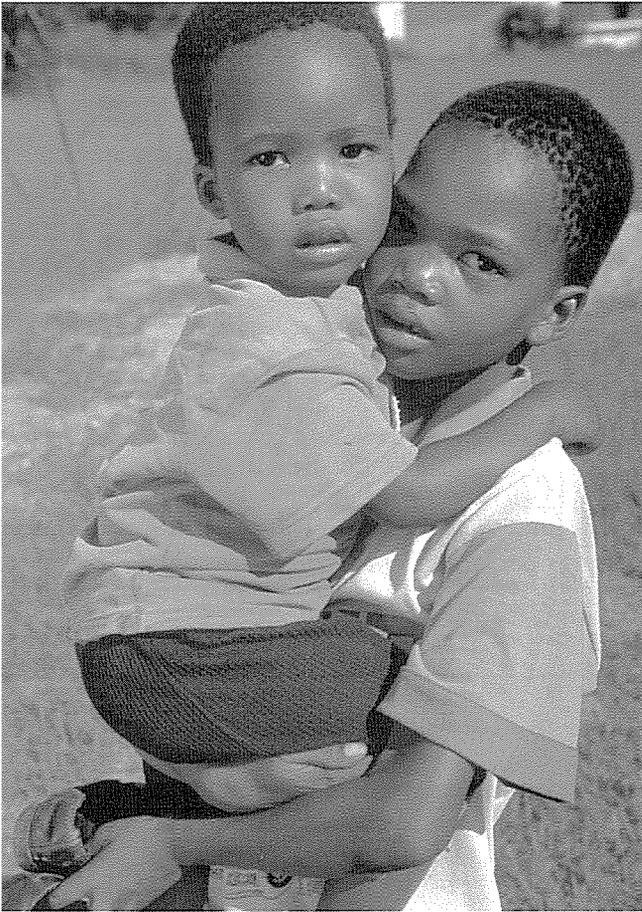
할머니와 모니카

할머니와 살고 있는 말라위의 에이즈 고아 모니카. 할머니는 에이즈 고아인 5명의 손주들을 돌보고 있다.



모자감염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2백3십만의 어린이

많은 여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남편으로부터 부부감염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런 여성들로부터 태어나는 아기들 세 명중 하나는 모자감염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된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이들이며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여섯 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에이즈 감염 임신부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아이가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를 받는 임신부는 10%에 지나지 않으며 에이즈 감염 어린이의 치료율도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UNICEF/H001-0183F/Giacomo Pirozzi

어린 시절을 빼앗아간 에이즈

“케냐에 살고 있는 플레트는 현재 21살이다. 그녀는 10살에 에이즈로 부모를 잃고 소녀가장이 되어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으며 14살 때부터 매춘을 하면서 두 동생을 먹여 살렸다. 그녀는 매춘을 하다가 부모들처럼 에이즈에 걸려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매춘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에이즈는 많은 어린이들의 어린 시절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은 한 쪽 부모 혹은 양부모 모두가 에이즈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게 된다. 많은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아픈 부모를 간병하거나 가사 혹은 생계를 떠맡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에이즈 치료비, 장례비 등으로 인해 파산상태가 되고 할머니와 살게 되거나 형제들이 친척집으로 쫓겨나 나누어지게 된다. 노쇠한 할머니가 심한 경우 10~12명의 고아들을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할머니들의 대부분은 경제력이 없거나 자신들도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에이즈는 전반적인 어린이 문제, 즉 거리의 아이들, 소년병, 미성년 매매춘, 인신매매, 영아 및 아동 사망, 기아 아동 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세계가 하나 되어 어린이 에이즈 퇴치를

전 세계가 어린이와 에이즈 문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에 의하면 2006~2010년 동안 전 세계 에이즈 고아의 지원과 보호, 에이즈 감염 어린이의 치료와 모자감염 예방을 위해 약 300억불의 기금이 필요하다. 세계 어린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관심과 결속을 통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여성 상원의원 바바라 리는 “에이즈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들의 수치이다. 이 아이들의 운명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만원이면 캄보디아의 에이즈 고아에게 한달간 음식 재공이 가능하고 3만원이면 중국의 에이즈 감염 어린이 1명에게 한달간 에이즈 약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다행히 에이즈 고아의 수가 미미하다. 그러나 지구 저편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아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말자. 우리도 한 때는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아 생존할 수 있었으며 현재 세계 경제 규모 10위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에이즈로 인해 가난, 외로움, 슬픔, 절망 가운데 사라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 후원문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02)738-8503, www.unicef.or.kr